[새광고] CJ, 햇반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즉석밥 시장, 치열한 경쟁 속에 그 규모도 1998년 100억 원 규모에서 현재 12배 이상 커졌다. 이러한 즉석밥 시장의 NO.1 브랜드 CJ 햇반이' 애인 같은 아내' 윤정을 기용해 엄마들의 마음을 담은 '미안해하지 마세요' 편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이에 관해 CJ 햇반 관계자는" 햇반은 좋은 품질의 국산 쌀을 엄선해 압력밥솥의 원리로 지어졌으며, 무균화 포장으로 갓 지은 밥맛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정수 처리된 물로 오염물질을 제거했으며, 고온 스팀으로 순간 가압을 통한 살균으로 미생물을 제거해 안심하고 맛있는 밥을 즐길 수가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새광고] 신창건설, 비바패밀리

중견건설업체 신창건설이' 아버지가 짓는 집'이라는 컨셉으로 자상한 아버지와 딸이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과 아이스링크에서의 행복한 순간을 소재로 한 새로운 CF를 선보였다. 신창건설에 따르면 이번 광고는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정성껏 집을 짓는 비바패밀리의 브랜드 컨셉과 더불어 아파트의 주거가치를 최우선시해온 신창건설의 건설철학이 잘 드러나 있다고 전했다. 특히 CF속에서 보여지는 야외 수영장과 아이스링크는 지난해 10월 분양된 대구 율하지구에 지어지고 있다고, 이는 기존의 아파트 광고가 실제 모습과 관련이 적은 고품격 이미지만을 강조해왔던데 비해, 실제로 건설 진행중인 시설을 이미지화하여 기존 아파트 광고와의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광고] 르노삼성, SM3 Neo

르노삼성차는 2008년 준중형차의 신모델인 'SM3 Neo'를 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대대적인 광고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르노삼성차 'SM3 Neo'는 기존 SM3의 신규 트림 차량으로 민첩한 드라이빙을 즐기는 기존 SM3의 타깃인 2535세대의 욕구와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을 함께 공략한 신차다. 이번 광고에서도 SM3 Neo는 새롭게 추가된 레드 색상의 차량과 레드 스티치로 포인트를 준 내부 인테리어를 포인트로 하여 '불빛과의 경쟁'을 다시 한번 벌였다.

이에 관해 르노삼성차의 임수빈 부장은" SM3 Neo는 내부 가죽시트를 기본 옵션으로 함과 동시에 시트, 핸들 및 도어에는 동급 최초로 스타일리쉬한 빨간색 스티치를 입혀 디자인을 강화했다"며," 최근 소비자들의 디자인적인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제작된 SM3 Neo는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새광고] KT 메가패스, 100% 광인터넷인 FTTH

KT는 FTTH(Fiber To The Home : 집안까지 100% 광케이블로 연결되는 광인터넷) 기술로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모두 100%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반쪽' 편 광고를 런칭했다.

기존의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은 가입자 가정 근처까지만 광케이블로 연결된 뒤 실제 가정 내 컴퓨터까지는 UTP케이블이라는 구리선으로 연결되는데 반해, FTTH는 가입자 가정의 컴퓨터까지 광케이블이 100% 연결되어 집 안에서 고용량 멀티미디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안정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IPTV와 인터넷, 전화 등 집 안의 모든 통신생활을 실시간으로 끊김 없이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다.

현대중공업, GS칼텍스 「이달의 좋은 광고」로 선정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현대중공업의' 명예회장님'편 TV 광고와 GS칼텍스의 '설날의 착한기름 이야기'편 인쇄광고를 2008년 2월' 이달의 좋은 광고'로 선정하였다.

현대중공업의' 명예회장님'편 TV 광고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과거 강연내용을 담아 경제 발전을 위해 다시 도약하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GS칼텍스의' 설날의 착한기름 이야기'편 인쇄광고는 가족간의 고마운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며 그 안에 담긴 행복의 의미를 보여주어 이달의 좋은 광고로 선정 되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매월 광고의 윤리성, 창의성 등이 돋보이는 광고를' 이달의 좋은 광고'로 선정, 광고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고 있다.

남상조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회장 연임

한국광고단체연합회는 3월 21일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소회의실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남상조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현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재선출하였다.

또한 김동현 현 상근부회장을 재선임하였으며, 박정규 동서식품 전무와 고영섭 오리콤 대표이사를 신임 비상근 부회장으로 선임하였다. 한편 김광현 한국신문협회광고협의회 회장, 유세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이순동 한국PR협회 회장, 정어지루 한국지역광고협의회 회장, 김상목 한국옥외광고협회 회장을 신임 이사로 선임하였다.

한국광고업협회 17대 회장, 박광순 대홍기획 사장 선임

한국광고업협회는 제17대 회장으로 박광순 대홍기획 사장을 선임했다. 박 사장은 1983년 대홍기획에 입사, 25년간 광고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김덕영 신임 대표이사 취임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www.pci.co.kr)는 김덕영 영업총괄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덕영 신임 대표이사는 경복고 졸업 후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마케팅을 전공했다. 제일기획 마케팅연구소 부국장 및 광고국 국장을 지냈으며, 2002년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로 자리를 옮겨 광고본부 상무, 전무, 영업총괄 부사장을 거쳐 2008년 대표이사직을 맡게 됐다.